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3. 주일예배시간변경

지난주간 교인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일예배시간을 오후2시에서 오후1시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5월 첫째주(다음주일)부터 주일 오후 1시에 예배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4/19/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865.00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은숙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1:1-5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복음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5/3/26	5/10/26
김주연	이우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증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배운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루신 일에 우리는 그저 동참하고 합쳐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기에서 전혀 무용지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마지막 본문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우리의 할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내 증인이라고 선언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정용어인 증인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에 응해야 합니다. 셋째는 법정에서 보고 들은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당연히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2천년전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을 풀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란 구약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의 실체가 곧 자기 자신임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됨으로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율법적인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증인이 될 자격이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도망친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을 경험한 이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 온전히 붙들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마저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순교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줄 알았고, 무엇이 복인줄 알았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증인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온갖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포장된 가짜 증인의 삶을 보여 주고 있는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열매와 맺은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증인이십니까?